

Artistic Feature of Traditional Garments of Guatemala

Park, Hwi-Sook* · Yu, Tae-Soon

Yeungnam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By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s well as media over national borders, features of various culture are getting more and more acquainted with our daily life.

Especially the Ethnic Look which was influenced by fashion culture of Asia, Africa or Latin America gave such a great influence to Western fashion culture as a theme appropriate to the Information Age which is the Neo Industrial Age. Furthermore, as well as increase of economical situation and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the world view that the globe is one village and human races are one, according to rapid exchange of different culture and civilization, meeting of the west and the east, and ethnic look started as a new trend in new view point of young generation, gave influence to the fashion trend. The ethnic look, which was born in this situation, forms a new value as a new theme of fashion in current western fashion with native and anthropological feature and property.

In Central America, being born in center of ancient culture and beautiful nature, Guatemala is a unique country with that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is Indio. They are in unique traditional garment in their daily lives, and each different village has each unique traditional pattern of garment, and it is difficult to find same phenomenon with this case in other countries.

It is difficult to find what made this phenomenon, but so many world famous fashion designers as well as researchers for world traditional garments are being interested in it, since the uniqueness and brilliance, which can be find in their traditional garments, has artistry and attractiveness which can seldom be find in other countries.

Ancient Mayans regarded red, yellow, black and white as important colors, thus they thought that red implies east, yellow south, black west, and white north. They weaved or embroidered over 300 pieces of their unique designs including animals, men, plants, gods, etc. on the background of Mayan mythology with splendid and beautiful colors with red, blue, yellow, purple, green, white and black with hand work, succeeding to tradition of ancient Maya. This combination of color textile is so various indeed, for their garments, belts, and hair decoration.

The splendid textile which is being used for them is their history and culture more than a simple artcraft, and it shows their abundant of sensitivity and mind.

Thus, in this research, we have studied peoplehood of Guatemalans through their artistic feature of traditional garments through concrete analysis and observation on patterns, dyeing, decoration technique, wearing patterns, etc. shown on their traditional garments, and we tried to give help to fashion designers for fashion marketing strategy for Latin America as well as Guatemala.

과테말라 민속의상에 나타난 예술적 특징

박휘숙* · 유태순

영남이공대학* · 대구가톨릭대학교

21세기 패션트렌드 테마 가운데 에콜로지는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에콜로지의 열매는 휴머니즘이며 그 뿌리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저마다 달리 입어왔던 민속의상으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각 민족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한다. 국경을 뛰어넘는 미디어와 교통의 발달로 점점 다양한 문화의 특징들이 우리들의 생활에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다.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 혹은 중남미의 복식문화에 영향을 받은 민족풍(Ethnic Look)은 후기 산업시대인,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패션의 주제로서 서양패션 문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경제여건의 향상과 교통수단의 발달, 그리고 젊은 세대의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민족풍, 동양과 서양의 만남, 서로 다른 문화와 문물의 신속한 교류에 따라 인류는 하나이며 지구촌이 한동네라는 세계관이 패션트렌드에 영향을 주었다. 그로 인해 태어난 민족풍은 토속적이고 인류학적인 요소와 특징으로 현재의 서구패션에 새로운 패션 테마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과 고대문화의 중심에서부터 태어난 과테말라는 인디오가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중미 유일의 나라이다. 촌락마다 다른 독특한 전통문양으로 된 의복을 일상적으로 착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를 거의 보기 힘들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 이유는 해명되지 않고 있으나, 과테말라 전통의상에서 볼 수 있는 원색직물의 독특함과 화려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예술성과 매력을 갖고 있어 세계의 민속의상 연구가는 물론 세계 유명 패션디자이너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과테말라는 다양한 지형과 기후로 인해 강하고 신축성 있는 섬유를 함유한 각종 나무나 관

목 및 식물이 많이 자라고 있어 일찍부터 직조가 풍요롭게 행하여 졌고, 일년 내내 한 계절이 계속되어 “영원한 봄의 대지”로 불려진다. 이러한 자연환경이 긴 세월을 거쳐 인디오들에게 조화 있는 색채감각을 가르치고 있고 마야문명 이라고 하는 깊고 중후한 역사의 전통이 영향을 미쳤다.

고대 마야인은 적(赤), 황(黃), 흑(黑), 백(白)을 중요한 색으로 생각해 적은 동, 황은 남, 흑은 서, 백은 북을 나타내는 색이라고 했다. 적, 청, 황, 자, 녹, 백, 흑의 오색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컬러로 마야 신화에 바탕을 둔 동물, 사람, 식물, 신 등 300개가 넘는 독특한 디자인을 고대 마야의 전통을 계승해 수작업으로 직조하거나 수를 놓았다. 이러한 원색직물의 조합은 의복, 대(帶), 머리장식(髮飾)에서 실로 다종다양하다.

현란한 색채와 독특한 문양으로 유명한 과테말라의 원색직물은 부족마다 고유의 색상과 문양을 채택하여 부족간의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십자(十字)형태로 구성된 위필(Huipil)은 입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족상징의 여러 가지 모티브에 둘러싸여 우주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듯한 의미를 주기도 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민속의상으로 사용되는 화려한 직물은 그 자체가 단순히 공예품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인 역사이자 문화로 그들의 풍부한 감성과 정신을 느낄 수 있다.

21세기는 인간적인, 문화의 향기가 높은 인간생활 중심의 세계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테말라 민속의상에 나타난 예술적 특징을 문양, 염직, 장식기법, 착장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고찰하여 민속의상에 담긴 과테말라 사람들의 민족성을 살펴보고, 패션디자이너들에게는 물론 과테말라를 비롯하여 중남미 패션마케팅 전략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